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11 DIOTIMUS THE VICIOU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Diotimus the Vicious」 (원서 PDF 82~8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4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비방을 당했을 때, 비방으로 갚을 것인가."

디오티무스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가르쳤는지 모른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경쟁 학파의 창시자 에피쿠로스를 헐뜯으려고 쉰 통이 넘는 음란한 편지를 위조한 일이다. 자기 학파의 크리시포스가 비방당하자 비방에는 비방으로 맞선 것이다. 저자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려, 선은 쉽게 잊히고 악은 오래 남는다고 말한다. 이 노트는 세 쪽 남짓한 짧은 장을 열여섯 문항으로 자른다. 짧은 장일수록 출제자는 숫자 하나, 이름 하나를 바꿔 묻는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9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불을 불로 맞서지 말고 기다릴 것(84쪽 ¶6) / 순간의 성급한 결정과 경계담(84쪽 ¶1~¶2) / 소송과 처벌(84쪽 ¶4~¶5) / 한 번의 악행으로만 기억되는 사람(83쪽 ¶1 · 85쪽 ¶2)
4~5	**밑줄 함축 의미**	a cipher / a single act of indisputable malice / the Stoa's great fighter / respond to slander with slander / went astray / a cautionary tale / posthumously framing Epicurus / fight fire with fire / hit too close to home / the once-Stoic Brutus's single deed
6	지칭 추론	he·him이 Posidonius·Zeno of Sidon 사이를 오가는 84쪽 ¶7 / 83쪽 ¶7의 the Stoic · the Stoa's great fighter(= Chrysippus) / 84쪽 ¶4 one(= a form of justice) / 84쪽 ¶7 the student(= Diotimus)
7~8	내용 일치·불일치	인물 정보(출생 · 출신 · 사망 미상, 100 BC?, 포세이도니오스, 알려진 신념) / 위조(쉰 통이 넘는 편지 · 에피쿠로스) / 아폴로도로스(약 400권 · 정원의 폭군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전언) / 소송(시돈의 제논) / 세네카(80번 넘게 · 한 번도 언급 안 함)
9~10	**어법**	It was ~ who 강조구문 · of whom · 끝에 남는 전치사 · All (that) + 단수 동사 · so ~ that · take to -ing · 관계대명사 what · as much as · hardly · be supposed to · let alone · no matter how much · 과거진행 수동 · end up -ing · let + O + 원형 · prompt + O + to V · could not have p.p. + 비교급 · may well have p.p.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forgotten↔remembered · indisputable↔doubtful · at odds↔in line · rising↔declining · ascendant↔declining · inexcusable↔excusable · earnestly↔cynically · snap↔considered · common↔rare · measured↔harsh · profound↔shallow · vengeful↔generous
12	빈칸 추론	the evil we do lives on and on / respond to slander with slander / literary fraud / a snap decision ... can undo all of it / wait and do nothing / let them destroy themselves / more eager and venomous than ... (존슨) / known to us only for his evil and vengeful decision
13	문장 삽입	위조 장면(83쪽 ¶5~¶6): 하나뿐인 악행 → 이천 년의 당혹 → 지어낸 듯한 행동 → 편지 위조 → 더 나아가 미치광이로 그림 → 오늘까지 남은 평판
14	무관한 문장	알려진 신념과 하나뿐인 행동의 모순(83쪽 ¶2 · ¶5, 85쪽 ¶2)에 아폴로도로스의 저작 수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에피쿠로스학파 쪽에서 본 사건(83쪽 ¶6~¶7, 84쪽 ¶1 · ¶4): 아테네에서 되살아난 학파 → 지도자 아폴로도로스와 크리시포스 공격 → 디오티무스의 위조 → 후계자 시돈의 제논의 소송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자기방어로 시작해 학파 전체의 오명으로 끝난 위조(83쪽 ¶7, 84쪽 ¶7~¶8) / 기다리지 못한 대가(84쪽 ¶4~¶6)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셋이다 — 편지는 쉰 통이 넘게(more than fifty), 아폴로도로스의 책은 약 400권, 세네카의 언급은 80번 넘게. 인물도 겹친다(포세이도니오스 · 아폴로도로스 · 시돈의 제논 · 아테나이오스 · 마그네시아의 데메트리오스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never once mentions ↔ often mentions, Athens ↔ Rome, Zeno of Sidon ↔ Apollodorus, more than fifty ↔ more than eighty). 숫자 · 지명 · 동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Diotimus the Vicious」 (83~85쪽)

경계담형(원리 → 공백 → 하나뿐인 행적 → 위조 → 동기 → 판정 → 의미 → 재판 → 교훈 → 여파 → 결말). 핵심 축은 **비방에는 비방(fight fire with fire) vs 기다림(wait and do nothing)**, 그리고 **잊히는 선(the good) vs 오래 남는 악(the evil)**.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3 ¶1~¶2	원리 · 인물	셰익스피어(가장 스토아적인 극): 선은 쉽게 잊히고 악은 오래 산다 / 아마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디오티무스 — 출생 · 사망 미상 / 알려진 신념: 삶의 궁극 목적 = 행복, 덕의 추구 = 그 길
83 ¶3~¶4	공백	스승? 포세이도니오스를 알았다는 기록뿐 / 입문 · 부모 · 제자 · 삶 · 선행 · 사양한 영예 모두 미상 → 수수께끼(a cipher)
83 ¶5	하나뿐인 행적	의심할 여지 없는 악의의 행동 하나 / 이천 년 넘게 당혹 / 무의미 · 옹졸 · 자기 철학과 우스울 만큼 어긋남 → 지어낸 이야기 같음
83 ¶6	위조	기원전 1세기로 넘어갈 무렵, 로마의 부상 속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철학 부활 / 쉰 통이 넘는 '음란한 편지' 위조 / 에피쿠로스 = 타락한 미치광이 → 오늘날까지 남은 평판
83 ¶7~¶8	동기	일부는 틀림없이 자기방어(저자의 판단) / 아폴로도로스(약 400권 · 정원의 폭군)의 크리시포스 비방(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 비방에 비방으로 — 더 나쁜 범죄
83 ¶9 ~ 84 첫 줄	판정	논리 · 진리를 중시한 학파에 용서받지 못할 일 / 존립 위협도 문서 위조를 정당화 못함 / 마르쿠스: 옳지 않으면 하지 말고 참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 원한 · 복수 · 경쟁을 넘어서야 할 스토아 → 길을 잃음
84 ¶1~¶3	의미	무엇을 위해? 좋은 삶을 추구한 학파를 깎아내리려고? / 유일한 공헌 = 경계담 — 순간의 결정 하나가 모든 수련을 무너뜨림 / 같은 무렵 거짓 고발당한 루틸리우스(9장) vs 죽은 에피쿠로스에게 누명을 씌운 스토아
84 ¶4~¶5	재판	아테나이오스(마그네시아의 데메트리오스 인용): 시돈의 제논이 고소 → 사형 선고 / 저자: 사형은 가능성 낮음, 무거운 벌금 · 아테네 추방은 틀림없음 / 더 큰 것은 개인적 수치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4 ¶6	교훈	불은 불로 → 스스로 화상 /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고 흉터는 영원 / 화날 때는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 것 / 적은 스스로 무너지게
84 ¶7~¶9	여파	동료 스토아까지 더럽힘 → 포세이도니오스의 더 절제된 시돈의 제논 반박서 / 사과 · 절연 여부는 모름 / 선을 그은 기록 없음 · 세네카(에피쿠로스학파 80번 넘게 언급)도 침묵 → 너무 아픈 데를 건드렸는지도
85 ¶1~¶2	결말	존슨: 학자들 다툼의 쓰라림 / 셰익스피어의 카이사르 장례 연설 — 브루투스의 단 하나의 행위 / 디오티무스도 악하고 앙심 어린 결정으로만 기억됨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기억되는 것	선(the good) — 쉽게 잊힘	악(the evil) — 오래 살아남음(셰익스피어)
우리가 아는 것	생애 · 스승 · 제자 · 선행(모두 미상 — a cipher)	단 하나의 악행(a single act of indisputable malice)
디오티무스의 신념과 행동	삶의 목적 = 행복, 그 길 = 덕의 추구	옹졸하고 무의미한 위조 — 자기 철학과 우스울 만큼 어긋남
비방에 대한 대응	비방에는 비방으로(디오티무스) · 불은 불로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 ·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스토아의 기준	원한 · 복수 · 하찮은 경쟁 · 논쟁의 승리 · 앙심	옳지 않으면 하지 말고 참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마르쿠스)
위협과 수단	존립 위협이 있으면 무엇이든 정당	위협이 있어도 문서 위조는 정당화되지 않음
에피쿠로스학파	타락한 미치광이의 학파(디오티무스가 그린 모습)	제자들을 좋은 삶으로 이끌려고 진지하게 애쓴 학파
수련과 결정	오랜 수련 · 독서가 지켜 준다	순간의 성급한 결정 하나가 모두 무너뜨린다
같은 무렵의 두 스토아(84쪽 ¶3)	죽은 에피쿠로스에게 누명을 씌운 디오티무스	정적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한 루틸리우스 루푸스(9장)
처벌	사형 선고(아테나이오스의 전언)	저자의 판단: 무거운 벌금 · 아테네 추방 + 개인적 수치
학파의 반응	공개적 사과 · 절연(바람)	기록 없음 · 세네카의 침묵 · 포세이도니오스의 절제된 반박서
남는 이름	도덕적 완성과 행복에 관한 깊은 말(있었을 수도)	악하고 앙심 어린 결정으로만 기억됨(브루투스처럼)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Diotimus	B. **Unknown**(출생 미상) · Origin **Unknown**(출신 미상) · D. Unknown(100 BC?) · 발음 Die-oh-TEEM-us · 저자가 붙인 이름 = the Vicious(악의에 찬)
알려진 신념	삶의 궁극 목적(the chief end in life) = **행복(well-being)** / 그에 이르는 길 = **덕의 추구**(the pursuit of virtue)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Posidonius	디오티무스가 그를 알았다는 기록(sources suggest)뿐 · 뒤에 시돈의 제논을 반박하는, 원래 의도했을 것보다 **더 절제된** 책을 씀(84쪽 ¶7)
Shakespeare	스토아의 위대한 관찰자 · 가장 스토아적인 극에서: 선은 쉽게 잊히고 악은 오래 산다 · 카이사르의 장례 연설 — 한때 스토아였던 **브루투스**의 단 하나의 행위(카이사르 암살)
시기 · 장소	기원전 **1세기**로 넘어갈 무렵 · 로마의 위세와 권력이 커 가던 때 ·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이 다시 일어남
licentious letters	**쉰 통이 넘는**(more than fifty) '음란한 편지' 위조 · 표적 = 경쟁 학파의 창시자 **에피쿠로스** · 그를 타락한 미치광이로 그림 → 오늘날까지 완전히 벗지 못한 평판
Apollodorus	당시 에피쿠로스학파의 수장 · 다작가(**약 400권**) · 별명 **'정원의 폭군(the Garden Tyrant)'** · 크리시포스가 남에게서 훔친 인용으로 책을 채웠다고 비방(**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전언) — 저자는 '거짓'이라 봄
Chrysippus / Marcus Aurelius	크리시포스 = '스토아의 위대한 투사(the Stoa's great fighter)'(4장) · 마르쿠스 = 훗날 스토아 교리를 압축: "옳지 않으면 하지 말라 … 참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Rutilius Rufus	대략 같은 무렵 정적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함(9장) — 그때 다른 스토아는 이미 죽은 에피쿠로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었음
Athenaeus / Demetrius of Magnesia	아테나이오스가 마그네시아의 데메트리오스를 **인용**해 전한 소송 이야기
Zeno of Sidon	아폴로도로스의 **후계자**(에피쿠로스학파 수장) · 디오티무스를 찾아내 **고소** · 법정이 그의 손을 들어 사형 선고(전언)
처벌	사형 — 로마라면 용인하지 않았을 극단적 정의 · 저자: 비방에 사형은 가능성 **낮음**, **무거운 벌금 · 아테네 추방**은 틀림없음 · 더 큰 것은 개인적 수치
Seneca	온갖 철학자를 폭넓게 다루고 남은 저작에서 에피쿠로스학파를 **80번 넘게** 언급 · 이 사건은 **한 번도** 언급 안 함 · 어떤 스토아도 선을 그은 기록 없음
Samuel Johnson	고전학자들 사이 다툼의 쓰라림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 "사소한 일이 옹졸한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 주석서의 욕설은 고용된 정치 논객보다 더 독함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Diotimus the Vicious」 (원서 PDF 83~85쪽) · 4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1-1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 수수께끼 디오티무스 83쪽 ¶1~¶4

원문 위치 원서 83쪽 ¶1~¶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It was Shakespeare, …, who would say	It was ~ who 강조구문
◆	¶1 첫 문장	the great observer of the Stoics	동격 · 지칭: 셰익스피어
★	¶1 첫 문장	the good we do in life is easily forgotten, but the evil we do lives on and on	빈칸 · 요약 1순위(장 전체의 틀)
●	¶1 첫 문장	easily forgotten	반전 후보 → long remembered
▲	¶2 첫 문장	no Stoic philosopher illustrates this principle more than	부정 주어 + 비교급 = 최상급 의미
▲	¶2 첫 문장	of whom so little is known	전치사 + 관계대명사
▲	¶2 셋째 문장	We're not sure when or how he died	간접의문문 어순
★	¶2 넷째 문장	the chief end in life was well-being, and that the pursuit of virtue was how we got it	내용 일치 후보(알려진 신념 둘)
▲	¶3 첫 문장	Who did he study under?	전치사가 끝에 남은 의문문
▲	¶3 셋째 문장	Sources suggest that he knew Posidonius	suggest(암시하다) + 직설법
★	¶3 셋째 문장	Posidonius	서답형 후보(10장 인물)
◆	¶4 둘째 문장	He is a cipher to us.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셰익스피어는 스토아를 깊이 관찰한 위대한 작가였다. 그는 훗날, 그것도 자기 작품 가운데 가장 스토아적인 극에서, 우리가 살면서 한 선은 쉽게 잊히지만 우리가 저지른 악은 오래도록 살아남는다고 말하게 된다. 저자는 아마 이 원리를 디오티무스만큼 잘 보여 주는 스토아 철학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너무나 적다.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의 신념도 몇 가지만 전한다. 예컨대 삶의 궁극 목적은 행복(well-being)이며, 덕을 추구하는 것이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누구에게 배웠는가.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 자료들은 그가 포세이도니오스를 알았음을 시사하지만, 그게 전부다. 어떻게 철학에 입문했는지, 부모는 누구였는지, 제자는 누구였고 그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행을 했고 어떤 영예를 사양했는지 —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어법

- **It was Shakespeare, the great observer of the Stoics, who would say—in his most Stoic play no less—that the good we do in life is easily forgotten, but the evil we do lives on and on.** : It was ~ who 강조구문(주어 Shakespeare를 강조, that도 가능). the great observer ~ = 동격. would say = 과거에서 본 미래(훗날 ~라고 말하게 된다). no less = 그것도, 다름 아닌. the good · the evil = 추상명사(선 · 악) → 단수 동사 is · lives(9장의 the good were punished처럼 '선한 사람들'을 뜻하는 경우와 구별). we do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Perhaps no Stoic philosopher illustrates this principle more than Diotimus, of whom so little is known.** : 부정 주어(no Stoic philosopher) + 비교급 + than = 최상급의 뜻(디오티무스가 가장 잘 보여 준다). of whom = 전치사 + 관계대명사(계속적 용법). 변형 → of who는 오답. Perhaps가 붙은 저자의 추정이다.
- **We're not sure when or how he died.** : be sure + 의문사절.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평서문 어순). 변형 → when or how did he die는 오답.
- **We know only of a few of his beliefs: for instance, that the chief end in life was well-being, and that the pursuit of virtue was how we got it.** : know of = ~이 있다는 것을 알다(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콜론 뒤 that절 둘 = beliefs의 내용. how we got it = 선행사 없이 쓰인 관계부사 how(~하는 방법)의 명사절이 보어. it = well-being.
- **Who did he study under?** : study under + 사람 = ~에게 배우다. 의문사 who가 전치사 under의 목적어라 전치사가 문장 끝에 남았다(격식체로는 Under whom did he study?).
- **Sources suggest that he knew Posidonius, but that's it.** : suggest가 '암시하다'일 때 that절은 직설법(knew). '제안하다'일 때만 (should) + 원형을 쓴다 → should know로 바꾸면 '알아야 한다고 제안한다'가 되어 문맥에 맞지 않는다. that's it = 그게 전부다.
- **What acts of kindness did he perform? What honors did he decline?** : 의문형용사 what + 명사(acts · honors) + did + 주어 + 원형. decline = (영예를) 사양하다(자동사 '쇠퇴하다'가 아님).
- **Again, we know nothing of any of this. He is a cipher to us.** : know nothing of =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다. any of this = 앞에 늘어놓은 물음 전부. cipher = 본래 '암호, 영(0)' →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bserver	관찰자	watcher, student	—
no less	그것도, 다름 아닌	indeed	—
live on	살아남다, 계속 존재하다	endure, persist	die out
illustrate	(실례로) 보여 주다	exemplify, demonstrate	—
principle	원리	rule, law	—
chief	주된, 가장 중요한	main, principal	minor
end (n.)	목적	goal, aim	means
well-being	행복, 잘 삶	flourishing, happiness	misery
pursuit	추구	quest, search	avoidance
virtue	덕	goodness, excellence	vic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tudy under	~에게 배우다	be taught by	—
introduce A to B	A를 B에 입문시키다	acquaint A with B	—
decline (v.t.)	(영예를) 사양하다	refuse, turn down	accept
cipher	수수께끼 인물	mystery, enigma	open book

내용 일치 출생 · 출신 · 사망 = 모두 미상(사망 100 BC?) · 알려진 신념 = 삶의 궁극 목적은 행복, 덕의 추구가 그 길 · 스승 = 확실하지 않음(포세이도니오스를 알았다는 기록뿐) · 셰익스피어의 원리 = 선은 쉽게 잊히고 악은 오래 산다. **지칭** ¶1 the great observer of the Stoics = Shakespeare / ¶2 this principle = 선은 잊히고 악은 남는다는 원리, it(how we got it) = well-being / ¶3 them = his students. **밑줄 의미** a cipher = 생애도 인품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암호를 쓴 사람이 아님).

> **한 줄 요약** 생애도 스승도 제자도 알려지지 않은 디오티무스는, 선은 잊히고 악은 오래 남는다는 셰익스피어의 원리를 아마 가장 잘 보여 주는 스토아다.

11-2 쉰 통이 넘는 위조 편지 — 비방에는 비방으로 83쪽 ¶5~¶8

원문 위치 원서 83쪽 ¶5~¶8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 첫 문장	a single act of indisputable malice	밑줄 의미: 알려진 유일한 행적
▲	¶5 첫 문장	All we really know about him is from	All (that) + 단수 동사
▲	¶5 첫 문장	one that has baffled … for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동격 one + 현재완료 계속
▲	¶5 둘째 문장	so pointless, so petty, and so comically at odds … that it almost sounds made up	so ~ that 결과 / sound + 형용사
●	¶5 둘째 문장	at odds with	반전 후보 → in line with
▲	¶6 첫 문장	as the philosophies of Epicurus enjoyed a resurgence in Athens amid	때의 as + 전치사 amid
●	¶6 첫 문장	the rising splendor and power of Rome	반전 후보 → declining
★	¶6 첫 문장	more than fifty "licentious letters"	숫자 — 서답형 후보
▲	¶6 셋째 문장	a reputation that Epicurus has struggled to completely shed even to this day	동격 + 현재완료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 첫 문장	Part of the motivation was no doubt self-defense	no doubt = 저자의 추정
★	¶7 둘째 문장	some four hundred books ... "the Garden Tyrant"	숫자 · 별명 — 서답형 후보
▲	¶7 둘째 문장	who in addition to writing ... was nicknamed	in addition to + 동명사
▲	¶7 셋째 문장	We are told by Diogenes Laërtius that ... had taken to smearing	전언의 수동 / take to -ing
◆	¶7 넷째 문장	the Stoa's great fighter	지칭: 크리시포스(4장)
★	¶8 첫 문장	respond to slander with slander	요지 · 빈칸 1순위
▲	¶8 둘째 문장	a crime worse than what Apollodorus was falsely alleging	비교급 + 관계대명사 what

내용

그에 관해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악의에서 나온 단 하나의 행동뿐이다. 그 행동은 이천 년이 넘도록 역사가들과 스토아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해 왔다. 너무나 무의미하고, 너무나 옹졸하고, 디오티무스가 따른다고 내세운 철학의 가르침과 우스울 만큼 어긋나서,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다. 기원전 1세기로 넘어가던 무렵, 로마의 위세와 권력이 커 가는 가운데 아테네에서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디오티무스는 그 경쟁 학파 창시자의 평판을 더럽히려고 쉰 통이 넘는 '음란한 편지'를 위조했다. 그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갔다. 에피쿠로스를 일종의 타락한 미치광이로 그려, 그 철학에 맞서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오늘날까지도 이 평판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동기의 일부가 틀림없이 자기방어였다고 본다. 당시 에피쿠로스학파는 기세를 올리고 있었고, 약 사백 권의 책을 쓰고 '정원의 폭군'이라는 별명을 얻은 다작가 아폴로도로스가 학파를 이끌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아폴로도로스는 크리시포스가 남에게서 훔친 인용으로 책을 채웠다고 주장하며 그를 헐뜯기 시작했다고 한다. 스토아의 위대한 투사를 향한 이런 비방에는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다. 디오티무스는 비방에 비방으로 맞서기로 했다. 아폴로도로스가 크리시포스에게 거짓으로 씌우던 죄보다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한 것이다.

어법

- **All we really know about him is from a single act of indisputable malice, one that has baffled historians and students of Stoicism for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 All (that) we really know =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주어 → 단수 동사 is. one = an act(앞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부정대명사, 동격) + 주격 관계대명사 that. has baffled + for = 현재완료 계속.
- **It's an act that seems so pointless, so petty, and so comically at odds with the teachings of the philosophy that Diotimus claimed to adhere to, that it almost sounds made up.** : that이 세 번 나온다. ① an act that seems = 주격 관계대명사 ② the philosophy that Diotimus claimed to adhere to = 목적격 관계대명사(전치사 to가 끝에 남음) ③ so ~ that it almost sounds = 결과의 that. sound + 형용사 보어(made up = 지어낸).
- **as the philosophies of Epicurus enjoyed a resurgence in Athens amid the rising splendor and power of Rome, Diotimus sat down and forged more than fifty "licentious letters" intended to slander the reputation of the founder of that rival school** : as = ~하던 무렵(때). amid = ~ 가운데(전치사). sat down과 forged의 병렬. intended to V = letters를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 which were intended to slander).

- **Diotimus portrayed Epicurus as some kind of depraved maniac—a reputation that Epicurus has struggled to completely shed even to this day—in order to bolster his arguments against the philosophy.** : portray A as B = A를 B로 그리다. a reputation ~ = 앞 내용의 동격. has struggled =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재완료. to completely shed = 부사가 to와 동사 사이에 낀 분리부정사(틀린 어법이 아님). in order to = 목적.
- **Part of the motivation was no doubt self-defense.** : part of + 단수 명사 → 단수 동사 was. no doubt = 틀림없이(부사구). 기록이 아니라 저자의 확신 섞인 추정이다.
- **the prolific Apollodorus, who in addition to writing some four hundred books was nicknamed "the Garden Tyrant."** : in addition to의 to는 전치사 → 동명사 writing. 변형 → in addition to write는 오답. some + 수 = 약. 계속적 용법 who + 수동(nickname A B의 수동 → was nicknamed B).
- **We are told by Diogenes Laërtius that Apollodorus had taken to smearing Chrysippus, claiming that the Stoic had filled his books with quotes he had stolen from others.** : We are told that = ~라고 전해진다(tell A that의 수동, 전언). take to -ing = ~하기 시작하다, ~이 버릇이 되다(to는 전치사). claiming = 분사구문(부연). quotes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had stolen(대과거).
- **Diotimus chose to respond to slander with slander. He decided to commit a crime worse than what Apollodorus was falsely alleging against Chrysippus.** : choose · decide + to V. respond to A with B = A에 B로 대응하다. a crime worse than ~ = 형용사구 후치 수식.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alleging의 목적어 자리가 빔). allege A against B = B에게 A의 죄를 씌우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disputable	논란의 여지가 없는	undeniable	doubtful
malice	악의	spite, ill will	goodwill
petty	옹졸한, 하찮은	small-minded, trivial	magnanimous
at odds with	~와 어긋나는	in conflict with	in line with
adhere to	~을 따르다, 고수하다	follow, stick to	abandon
resurgence	부활, 재기	revival, comeback	decline
forge	위조하다	fake, counterfeit	—
licentious	음란한, 방탕한	lewd, immoral	chaste
slander	비방하다; 비방	defame, libel	praise
depraved	타락한	corrupt, wicked	virtuous
bolster	뒷받침하다, 강화하다	support, strengthen	undermine
ascendant	세력을 얻고 있는	rising, dominant	declining
prolific	다작의	productive	unproductive
smear (v.)	헐뜯다, 더럽히다	vilify	vindicate

내용 일치 당혹시킨 기간 = 이천 년 넘게 · 시기 = 기원전 1세기로 넘어갈 무렵 · 장소 = 아테네(로마는 부상 중) · 위조 = 쉰 통이 넘는 '음란한 편지' · 아폴로도로스 = 약 400권 · 정원의 폭군 · 비방 내용 = 크리시포스가 남의 인용을 훔쳤다 · 전한 사람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 동기의 일부 = 자기방어(저자의 판단). **지칭** ¶5 one = act / ¶6 that rival school = 에피쿠로스학파, the founder = Epicurus / ¶7 the Stoic · the Stoa's great fighter = Chrysippus, he(had stolen) = Chrysippus / ¶8 He = Diotimus.

한 줄 요약 에피쿠로스학파의 수장 아폴로도로스가 크리시포스를 비방하자, 디오티무스는 쉰 통이 넘는 음란한 편지를 위조해 에피쿠로스를 헐뜯음으로써 비방에 비방으로 맞섰다.

11-3 옳지 않으면 하지 말라 — 스스로 경계담이 되다 83쪽 ¶9 ~ 84쪽 ¶3

원문 위치 원서 83쪽 ¶9 ~ 84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 첫 문장	For a school that prized logic and truth as much as virtuous behavior	for(~에게는) + as much as
●	¶9 첫 문장	inexcusable	반전 후보 → excusable
▲	¶9 둘째 문장	Even if … it hardly justifies	양보 even if + 부정어 hardly
★	¶9 둘째 문장	literary fraud	빈칸 후보
◆	¶9 셋째 문장(84쪽 첫 줄로 이어짐)	"If it is not right, do not do it," … "if it is not true, do not say it."	밑줄 의미: 행동과 말의 기준(마르쿠스)
▲	84쪽 첫 줄(¶9 넷째 문장)	is supposed to be beyond grudges, beyond revenge, beyond	be supposed to + beyond 반복
▲	84쪽 첫 줄(¶9 다섯째 문장)	not supposed to do anything—let alone lie and mislead—out of spite	let alone / out of
◆	84쪽 첫 줄(¶9 여섯째 문장)	Diotimus went astray	밑줄 의미: 원칙에서 벗어남
●	84쪽 ¶1 둘째 문장	a school that also earnestly sought to	반전 후보 earnestly → cynically
◆	84쪽 ¶2 첫 문장	a cautionary tale	밑줄 의미 · 요약 1순위
▲	84쪽 ¶2 첫 문장	making himself a cautionary tale	결과의 분사구문 + 재귀대명사
▲	84쪽 ¶2 둘째 문장	no matter how much training or reading we have done	no matter how much + 명사
★	84쪽 ¶2 둘째 문장	a snap decision made in the moment can undo all of it	요지 1순위
▲	84쪽 ¶3 첫 문장	What might Rutilius Rufus have thought, to know that	might have p.p. + 조건의 to부정사
▲	84쪽 ¶3 첫 문장	he was being brought up on false charges	과거진행 수동
◆	84쪽 ¶3 첫 문장	posthumously framing Epicurus	밑줄 의미: 죽은 사람에게 누명(9장 연결)

내용

논리와 진리를 덕 있는 행동만큼 귀하게 여긴 학파에게 디오티무스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설령 에피쿠로스학파가 이제 스토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었다 해도, 그것이 문서 위조라는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훗날 스토아의 가르침을 압축해 "옳지 않으면 하지 말라. 참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고 쓴다. 스토아는 원한도, 복수도, 하찮은 경쟁이나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욕구도 넘어서 있어야 한다. 앙심을 품고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며,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디오티무스는 어디선가, 어떻게든 길을 잃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제자들을 좋은 삶으로 이끌려고 진지하게 애쓴 또 하나의 학파를 깎아내리기 위해서였는가. 결국 이것이 디오티무스가 스토아의 역사에 남긴 유일한 공헌이 되었고, 그는 스스로 경계담이 되었다. 그는 스토아도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련하고 읽었더라도 순간의 성급한 결정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 대략 같은 무렵 루틸리우스 루푸스는 정적들에게 거짓 혐의로 고발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스토아가 이미 죽은 에피쿠로스에게 누명을 씌우느라 분주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루틸리우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삶과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고 모순되며, 자주 실망스럽다.

어법

- **For a school that prized logic and truth as much as virtuous behavior, Diotimus's actions would have been inexcusable.** : for = ~에게는(판단의 관점). as much as = 원급 비교(A만큼 B도). would have been = 과거 일에 대한 판단 · 추측(~였을 것이다).
- **Even if Epicureanism was now posing some kind of existential threat to Stoicism, it hardly justifies the commission of literary fraud.** : even if = 설령 ~라 해도(양보). hardly = 거의 ~않다(부정어 → not과 함께 쓰지 않는다. 변형 → doesn't hardly justify는 오답). commission = 범행(commit의 명사형, '위원회'가 아님).
- **"If it is not right, do not do it," Marcus Aurelius would write in his encapsulation of Stoic doctrine, "if it is not true, do not say it."** : 조건절(If + 현재) + 명령문. would write = 과거에서 본 미래(디오티무스보다 훗날 쓰게 된다). 인용문 사이에 전달절이 끼어든 구조.
- **The Stoic is supposed to be beyond grudges, beyond revenge, beyond petty competition or the need to win arguments.** : be supposed to V = ~하기로 되어 있다, ~해야 한다. 변형 → is supposed being은 오답. the + 단수 명사(The Stoic) = 스토아라는 사람 일반(총칭). beyond + 명사 = ~을 넘어선. the need to win = 형용사적 to부정사.
- **Certainly, they're not supposed to do anything—let alone lie and mislead—out of spite.** : they = 앞 문장의 The Stoic(총칭)을 받는 대명사. let alone = 하물며 ~는(부정문 뒤에서), 뒤에는 앞 동사와 같은 형태의 원형(lie · mislead). out of spite = 앙심에서(out of = 동기).
- **It would be, then, Diotimus's sole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Stoicism, making himself a cautionary tale.** : It = 그 위조 사건. would be = 과거에서 본 미래(결국 ~이 되었다). making ~ = 결과의 분사구문. 의미상 주어는 Diotimus(소유격에서 나옴)이고 himself가 그를 가리킨다. make + 재귀대명사 + 명사 보어.
- **He proved that the Stoics were hardly perfect, and that no matter how much training or reading we have done, a snap decision made in the moment can undo all of it.** : prove의 목적어 that절 둘이 and로 병렬. no matter how much + 명사 = 아무리 많은 ~을 했더라도(= however much). made in the moment = 과거분사 후치 수식. it = 수련과 독서.
- **What might Rutilius Rufus have thought, to know that at roughly the time he was being brought up on false charges by his political enemies, another Stoic was hard at work posthumously framing Epicurus?** : might have p.p. = ~했을까(과거 추측). to know = 조건의 to부정사(= if he had known). the time 뒤 관계부사 when 생략. was being brought up = 과거진행 수동(고발당하고 있던). be hard at work -ing = ~하느라 분주하다. posthumously = 사후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ize (v.)	귀하게 여기다	value, treasure	disregard
inexcusable	용서할 수 없는	unforgivable	excusable
existential	존립에 관한	life-or-death, survival-related	—
justify	정당화하다	warrant, excuse	condemn
fraud	사기, 위조	deception, forgery	honesty
grudge	원한	resentment	goodwill
spite	앙심	malice	kindness
go astray	길을 잃다, 빗나가다	err, stray	stay on course
discredit	신용을 떨어뜨리다	disgrace, undermine	vindicate
earnestly	진지하게	sincerely	cynically
cautionary tale	경계담, 교훈이 되는 이야기	warning, object lesson	—
snap (a.)	순간적인, 성급한	hasty, sudden	considered
posthumously	사후에	after death	—
frame (v.)	누명을 씌우다	set up, incriminate	exonerate

내용 일치 용서받지 못했을 이유 = 논리 · 진리를 덕 있는 행동만큼 중시한 학파 · 마르쿠스의 두 계명 = 옳지 않으면 하지 말라 / 참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 에피쿠로스학파도 좋은 삶을 진지하게 추구 · 같은 무렵 거짓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 = 루틸리우스 루푸스(9장). **밑줄 의미** went astray = 스토아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 a cautionary tale = 따라 하지 말아야 할 본보기 / posthumously framing Epicurus = 이미 죽은 에피쿠로스에게 누명을 씌움. **지칭** 84쪽 첫 줄 they = the Stoic(총칭) / 84쪽 ¶2 It = 그 위조 사건, all of it = 수련과 독서 / ¶3 he(was being brought up) = Rutilius Rufus.

> **한 줄 요약** 옳지 않으면 하지 말고 참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스토아의 기준에서 벗어난 디오티무스는, 순간의 결정 하나가 모든 수련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 준 경계담이 되었다.

11-4 법정, 침묵, 그리고 악행만 남은 이름 84쪽 ¶4 ~ 85쪽 ¶2

원문 위치 원서 84쪽 ¶4 ~ 85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첫 문장	Athenaeus, citing Demetrius of Magnesia	출처 둘 — 내용 일치 후보
▲	¶4 첫 문장	Zeno of Sidon, who succeeded Apollodorus as head of …, tracked Diotimus down and filed suit	관계절 삽입 + 동사 병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둘째 문장	sentenced Diotimus to death, which is	sentence A to B / 계속적 which
◆	¶4 둘째 문장	certainly not one Rome would have countenanced	지칭: one = a form of justice
▲	¶5 첫 문장	While it's unlikely that … would have been given	양보 while + 가주어
★	¶5 첫 문장	a strong fine and exile from Athens	내용 일치 · 서답형 후보
◆	¶6 둘째 문장	We fight fire with fire and end up burning ourselves.	밑줄 의미 1순위
★	¶6 넷째 문장	it's almost always better to wait and do nothing	주장 · 빈칸 1순위(9장 연결)
▲	¶6 다섯째 문장	we ought to let them destroy themselves	let + O + 원형 + 재귀대명사
▲	¶7 첫 문장	prompted Posidonius to write what was certainly a more measured book … than he might have otherwise intended	prompt + O + to V / 비교
●	¶7 첫 문장	more measured	반전 후보 → harsher
★	¶8 둘째 문장	about the Epicureans more than eighty times … never once mention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9	hit too close to home	밑줄 의미 1순위
★	85쪽 ¶1 둘째 문장	more eager and venomous than … the most furious controvertist in politics	빈칸 후보(존슨)
▲	85쪽 ¶2 첫·둘째 문장	could not have captured … better. Nor could … be any more apt.	부정 + 비교급 = 최상급 / Nor 도치
◆	85쪽 ¶2 셋째 문장	the once-Stoic Brutus's single deed	밑줄 의미: 한 번의 행위가 삶 전체를 덮음

내용

아테나이오스는 마그네시아의 데메트리오스를 인용해, 아폴로도로스의 뒤를 이어 에피쿠로스학파의 수장이 된 시돈의 제논이 디오티무스를 찾아내 소송을 걸었다고 전한다. 법정은 시돈의 제논의 손을 들어 디오티무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저자는 이것이 꽤 극단적인 정의이며 로마라면 결코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비방처럼 흔한 일에 사형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낮지만, 무거운 벌금과 아테네 추방이 내려졌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자는 본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개인적인 수치였다. 저자는 여기서 교훈을 끌어낸다. 우리는 불을 불로 맞서다가 결국 스스로 화상을 입는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큰불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 화가 날 때는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거의 언제나 낫다. 적에 관해서라면, 가능하다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두어야 한다. 디오티무스의 악명은 동료 스토아들까지 더럽혔다. 그 탓에 포세이도니오스는 디오티무스를 고발한 시돈의 제논을

반박하는 책을, 원래 의도했을 것보다 분명 더 절제된 어조로 썼다. 그토록 명예로운 사람이 위조를 변호했을 리는 없다. 그는 아마 초점을 그 학생에게서 학파로 옮겨,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 대한 스토아의 실제 반론이 무엇인지 밝혀야 했을 것이다. 그가 디오티무스 일을 사과했는지, 그 비열한 수법과 선을 그었는지, 크리시포스에 대한 아폴로도로스의 비방을 바로잡았는지는 바랄 뿐 알 수 없다. 당시에도 그 뒤 여러 세대에도 디오티무스의 범죄와 선을 그은 스토아의 기록은 없다. 온갖 철학자와 그들의 행동에 관해 폭넓게 쓰고, 남아 있는 저작에서 에피쿠로스학파를 여든 번 넘게 언급한 세네카도 이 사건과 자기 학파의 슬픈 실패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어쩌면 학자들끼리의 절박한 다툼이 너무 아픈 데를 건드렸는지도 모른다. 새뮤얼 존슨은 고전학자들 사이의 다툼이 왜 그토록 쓰라린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사소한 일이 옹졸한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의견이 맞서기만 해도 교만한 사람은 화를 내며, 주석서에는 돈을 받고 남을 헐뜯는 가장 사나운 정치 논객보다 더 열띠고 독한 욕설과 경멸이 담기곤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디오티무스의 어리석음을 이보다 잘 담은 말은 없다고 한다. 셰익스피어가 쓴 카이사르의 장례 연설도 더없이 들어맞는다. 그 극에서 한때 스토아였던 브루투스의 단 하나의 행위, 곧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은 그가 평생 한 다른 모든 일을 압도하고 가려 버린다. 디오티무스도 그러했다. 그는 도덕적 완성과 행복의 추구에 관해 흥미롭고 깊은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경쟁 학파 창시자의 평판을 무너뜨리려 한 악하고 앙심 어린 결정으로만 알려져 있다.

어법

- **Athenaeus, citing Demetrius of Magnesia, says that Zeno of Sidon, who succeeded Apollodorus as head of the Epicurean school, tracked Diotimus down and filed suit against him.** : citing ~ = 주어 뒤에 끼어든 분사구문(= who cites). 주어 Athenaeus(단수) → says(기록을 전할 때의 현재형). that절의 주어 Zeno of Sidon 뒤에 계속적 who절이 끼고 동사 tracked · filed가 병렬. succeed A as B = A의 뒤를 이어 B가 되다. track down의 목적어가 대명사면 반드시 사이에(track him down).
- **The court sided with Zeno of Sidon and sentenced Diotimus to death, which is a rather extreme form of justice—and certainly not one Rome would have countenanced.** : sentence A to B = A에게 B(형벌)를 선고하다. 계속적 용법 which = 앞 절 전체(사형 선고). one = a form of justic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ould have countenanced = 로마였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가정의 뜻을 품은 would have p.p.).
- **While it's unlikely that the death penalty would have been given for something as common as slander, there can be no doubt that a strong fine and exile from Athens were imposed.** : while = ~이긴 하지만(양보). it's unlikely that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했을 가능성은 낮다, 저자의 추측). would have been given = 완료 수동. something as common as = 원급 비교의 후치 수식. 주어 a strong fine and exile(둘) → 복수 동사 were.
- **We fight fire with fire and end up burning ourselves.** : fight A with A = 같은 방식으로 맞서다. end up -ing = 결국 ~하게 되다. 변형 → end up to burn은 오답. 주어와 같은 대상이므로 재귀대명사 ourselves.
- **When we are angry, it's almost always better to wait and do nothing. And as far as our enemies go, if possible, we ought to let them destroy themselves.** : 가주어 it + 진주어 to wait and (to) do(병렬). as far as A go = A에 관해서라면. if possible = if (it is) possible. let + O + 원형(destroy). 변형 → let them to destroy는 오답. themselves = them(적들).
- **it prompted Posidonius to write what was certainly a more measured book against Diotimus's accuser, Zeno of Sidon, than he might have otherwise intended** : 앞의 to enough of an extent와 이어지는 결과의 that절 속 문장. prompt + O + to V = ~가 ~하게 만들다. what was ~ a book = write의 목적어인 what절. more ~ than he might have otherwise intended = 비교 + might have p.p.(그렇지 않았다면 의도했을지 모르는 것보다). Diotimus's accuser, Zeno of Sidon = 동격.
- **He could not have captured the folly of Diotimus better. Nor could Shakespeare's funeral oration of Caesar be any more apt.** : could not have p.p. + 비교급 = 더 잘 ~할 수는 없었다 → 더없이 잘 ~했다(최상급의 뜻).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앞 문장의 부정을 이어받음). any more + 형용사 = 조금이라도 더.

- **a philosopher who may well have had many interesting and profound things to say about the pursuit of moral perfection and well-being, but instead is known to us only for his evil and vengeful decision** : may well have p.p. =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추정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님). things to say = 형용사적 to부정사. 관계절의 동사 may well have had와 is known이 but으로 병렬. be known for = ~으로 알려지다(이유), known to us = 우리에게(대상).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ite	인용하다	quote, refer to	—
track down	찾아내다	hunt down, trace	lose track of
file suit against	~을 상대로 소송을 걸다	sue	—
side with	~의 편을 들다	support	oppose
countenance (v.)	용인하다	tolerate, approve	forbid
impose	(벌을) 부과하다	inflict, levy	lift
conflagration	큰불	blaze, inferno	—
infamy	악명	notoriety, disgrace	honor
measured	절제된, 신중한	restrained, moderate	intemperate
disavow	부인하다, 관계를 끊다	repudiate, disown	endorse
despicable	비열한	contemptible	admirable
squabble	(사소한) 다툼	quarrel, spat	—
folly	어리석음	foolishness	wisdom
vengeful	앙심을 품은, 복수심에 찬	spiteful, vindictive	forgiving

내용 일치 출처 = 아테나이오스(마그네시아의 데메트리오스 인용) · 고소한 사람 = 시돈의 제논(아폴로도로스의 후계자) · 선고 = 사형(저자는 가능성 낮다고 봄) · 틀림없는 처벌 = 무거운 벌금 · 아테네 추방 · 포세이도니오스 = 더 절제된 반박서 · 세네카 = 에피쿠로스학파 80번 넘게, 이 사건은 한 번도 · 브루투스 = 카이사르 암살. **밑줄 의미** fight fire with fire = 같은 수단으로 맞서다가 함께 탄다 / hit too close to home = 자기 학파의 치부라 다루기 거북했다 / the once-Stoic Brutus's single deed = 한 번의 행위가 삶 전체를 덮음. **지칭** ¶4 one = a form of justice / ¶7 the student = Diotimus, he(apologize · disavow · correct) = Posidonius / 85쪽 ¶2 He = Samuel Johnson, the man = Brutus.

> **한 줄 요약** 고소당해 벌을 받고 학파에까지 오명을 남긴 디오티무스는, 불을 불로 맞선 대가로 악행 하나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11 DIOTIMUS]

범위	Diotimus the Vicious (원서 PDF 82~8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someone wrongs us, our first impulse is to strike back just as hard. The story of Diotimus shows where that impulse leads: he answered one smear with a far worse one, and the punishment and disgrace that followed fell on him. Retaliation rarely stays small. Once both sides start throwing sparks, the blaze spreads, and before long no one can say which side lit the first match; only the burns last, if we escape the fire at all. So when anger rises, the wiser course is almost always to pause and hold still. As for our enemies, where we can, we should step aside and let their own conduct bring them down.

① We should answer an unfair attack quickly, before it spreads.
② When we are angry, we should usually hold back instead of striking back.
③ We must expose our enemies in public so that they can do no more harm.
④ We should find out who started a conflict before we respond to it.
⑤ A good reputation protects us from the damage of slander.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Epicureans did not let the forgeries go unanswered. Athenaeus, drawing on Demetrius of Magnesia, reports that Zeno of Sidon, Apollodorus's successor as leader of the Epicureans, hunted Diotimus down and brought a lawsuit against him. The court ruled for Zeno and condemned the forger to death. The author doubts that part of the story. Slander was far too ordinary an offense to be punished with execution, and such severe justice is certainly not something Rome would have tolerated. What the author regards as beyond doubt is that Diotimus was hit with a heavy fine and driven out of Athens. Greater than either penalty, however, was the personal shame he had brought on himself.

① How Zeno of Sidon Defended the Stoics in Court
② Why Rome Approved of Death for Slander
③ Demetrius of Magnesia: The Judge Who Spared Diotimus
④ The Epicureans' Secret Plan to Forge Letters
⑤ A Forger in Court: The Price Diotimus Paid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toic philosophy asks for constant practice: years of reading, reflection, and self-examination meant to keep us steady when we are tested. The case of Diotimus is a reminder that none of this comes with a guarantee. Whatever he had studied did not stop him from forging letters to blacken a rival school—a school that, like his own, was sincerely trying to guide its students toward a good life. His only lasting contribution to Stoicism, then, was to become an example of what not to do. He showed that the Stoics were far from flawless, and that all of a person's training can be wiped out by one rash decision made in a single moment.

① Long years of training guarantee that a person will act wisely.
② Rival schools of philosophy rarely share the same goals.
③ One hasty decision can undo years of training and study.
④ Stoics should study rival schools closely before judging them.
⑤ Forgery was a common practice among ancient philosophers.

4. 밑줄 친 a ciph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Few Stoics are as hard to know as Diotimus. His birth year is lost, and so are the date and manner of his death. We can name only a couple of his views: that well-being is the highest goal of life, and that we reach it by pursuing virtue. Did he have a teacher? Some sources link him with Posidonius, and there the trail ends. We cannot say how he came to philosophy, who his parents were, whom he taught or how he helped them, how he lived, what kindnesses he did, or which honors he turned down. On every question that would let us picture the man, the record is silent. To us, he is a cipher.

① a person whose life and character remain almost entirely unknown
② a writer who hid his ideas in secret codes
③ a philosopher who refused to share his beliefs with others
④ a teacher whose students became more famous than he was
⑤ a man whose name was forgotten while his deeds were praised

5. 밑줄 친 hit too close to hom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e might expect later Stoics to have condemned Diotimus openly. Yet no record survives of any Stoic distancing himself from the forgeries, either in Diotimus's own lifetime or in the generations that followed. The silence of Seneca is especially striking. He wrote freely about all sorts of thinkers and their conduct, and his surviving works mention the Epicurean school over eighty times. Not once, however, does he refer to the scandal or to the sorry failure of his own school. Why? Perhaps a desperate quarrel inside the world of philosophy hit too close to home for a Stoic to write about with ease.

① took place too far from Rome for Seneca to hear about it
② was too unimportant to deserve a philosopher's attention
③ had already been settled by the Epicureans in court
④ was too painfully embarrassing for the Stoics themselves to discuss
⑤ concerned private family matters rather than philosophy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Diotimus's disgrace stained the reputation of his fellow Stoics as well. Posidonius felt that ① he had to answer Zeno of Sidon, the Epicurean who had taken the forger to court, yet the book he wrote against ② him was certainly more restrained than ③ he might otherwise have intended. A man of such honor would never have defended forged letters. More likely, ④ he needed to turn attention away from the disgraced pupil and back to the school itself, explaining what the Stoics really objected to in Epicurus's teaching. Did ⑤ he apologize for Diotimus, reject his shameful tactics, or correct Apollodorus's old charge against Chrysippus? One can hope so, but no one know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Diotimus is one of the most obscure figures in the history of Stoicism. Neither his birthplace nor his birth date is known, and his death is dated only tentatively to around 100 BC. Some sources connect him with Posidonius. Of his teachings, only a few survive, among them the view that the chief goal of life is well-being and that pursuing virtue is how we reach it. What made him notorious was a single deed: while Epicureanism was reviving in Athens, he forged more than fifty indecent letters to wreck the reputation of Epicurus. Zeno of Sidon later sued him, and Seneca, though he wrote often about the Epicureans, never mentioned the affair.

① 디오티무스의 출생지는 알려져 있지만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② 디오티무스는 명예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다.
③ 디오티무스를 법정에 세운 사람은 아폴로도로스였다.
④ 세네카는 에피쿠로스학파를 다루며 이 사건을 여러 번 언급했다.
⑤ 디오티무스는 에피쿠로스의 평판을 무너뜨리려고 쉰 통이 넘는 편지를 위조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Why would a Stoic stoop to forgery? Part of the reason, the author has no doubt, was self-defense. At the time, the Epicurean school was gaining strength under Apollodorus, a tireless writer credited with about four hundred books and known as "the Garden Tyrant." According to Diogenes Laërtius, Apollodorus had begun attacking Chrysippus, claiming that the great Stoic had stuffed his works with quotations taken from other writers. Such an accusation against the Stoa's champion could not simply be ignored. Diotimus, however, chose the worst possible reply. He met slander with slander, committing a crime more serious than the one Apollodorus was falsely charging Chrysippus with.

① 저자는 디오티무스의 동기 가운데 일부가 자기방어였다고 본다.
② 당시 에피쿠로스학파는 아폴로도로스의 지도 아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③ 아폴로도로스는 약 사백 권의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아폴로도로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⑤ 디오티무스의 범죄는 아폴로도로스가 크리시포스에게 씌운 죄보다 더 무거웠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o a school that valued reason and honesty ① as highly as good conduct, Diotimus's forgeries would have been beyond excuse. Even if the Epicureans now posed a real danger to the Stoa, that could hardly ② justify an act of literary fraud. Marcus Aurelius would later boil Stoic teaching down to two commands: do nothing that is not right, and say nothing that is not true. A Stoic is meant ③ standing above grudges and revenge, above petty rivalry and the craving to win every debate. He should never act out of spite, ④ let alone lie in order to deceive. Somewhere along the way, Diotimus abandoned the very principles ⑤ that he claimed to live by.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Stoic Rutilius Rufus knew better than anyone what it meant to be falsely accused. His political enemies charged him with extorting the very people he had protected, even though they themselves were the real extortioners, and he refused to say a word in his own defense. What might he have thought had he known (A) [that / what] at nearly the same moment, while he was being (B) [put / putting] on trial on those invented charges, a fellow Stoic was busy framing Epicurus, a man already dead? One Stoic endured slander in silence; another manufactured it. History, the author reminds us, is full of such complications and contradictions, and it is often (C) [disappointing / disappointed].

	(A)	(B)	(C)
①	that	put	disappointing
②	what	put	disappointed
③	that	putting	disappointing
④	what	putting	disappointed
⑤	that	put	disappoint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Shakespeare, a keen observer of the Stoics, suggested in the most Stoic of his plays that the good that people do is soon ① forgotten, while their wrongs outlive them. In that play, Brutus, once a follower of the Stoics, commits a single deed—the killing of Julius Caesar—that comes to ② overshadow everything else he does in his life. The story of Diotimus ③ confirms the same grim rule. He might well have offered many ④ profound insights into moral perfection and human well-being, but if so, they have faded from memory. History remembers him only for his ⑤ generous decision to ruin the good name of the founder of a rival school.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Why do quarrels among scholars so often turn nasty? Samuel Johnson admitted that the bitterness of such disputes is hard to account for, but he offered some clues. Trifles can puff up small-minded people, and vanity grabs hold of the slightest excuse. Mere disagreement is enough to make proud people furious. As a result, scholarly commentaries often overflow with abuse and scorn that is _____. The author believes Johnson could not have described the folly of Diotimus more accurately: a rivalry between schools drove a Stoic to forge letters against a rival who was already dead.

① milder than the criticism heard in politics
② fiercer and more poisonous than a paid political writer's attacks
③ hidden behind polite and respectful language
④ quickly forgotten once the dispute is settled
⑤ meant to help fellow scholars improv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Yet he went well beyond merely writing obscene letters.

Everything we know about Diotimus comes from one act of undeniable spite. (①) For over two millennia, it has puzzled historians and Stoic scholars alike. (②) The deed is pointless, petty, and so absurdly contrary to the philosophy he claimed to follow that it hardly seems real. (③) At a time when Epicurus's philosophy was reviving in Athens, Diotimus forged more than fifty indecent letters to blacken the name of that rival school's founder. (④) He painted Epicurus as a kind of depraved madman to strengthen his own case against Epicurean thought. (⑤) That image has clung to Epicurus ever since.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① The little we know of Diotimus's thought sounds thoroughly Stoic: he held that well-being is life's highest aim and that virtue is the road to it. ② A man with such beliefs, one would think, should have been the last person to lie about a rival out of spite. ③ Apollodorus, who led the Epicurean school at the time, wrote some four hundred books. ④ Yet the only deed of his that history records, forging letters to disgrace Epicurus, flatly contradicted the philosophy he professed. ⑤ Perhaps he had many deep things to say about moral perfection, but history remembers him only for his act of reveng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Diotimus's day, the philosophy of Epicurus was flourishing once more in Athens.

(A) Stung by those attacks, Diotimus struck back at this school, though it, too, sincerely tried to guide its pupils toward a good life. His forged letters painted Epicurus as a depraved madman, an image Epicurus has never fully shaken off.

(B) Apollodorus's successor as head of the school, Zeno of Sidon, refused to let the forgeries pass. He tracked down the man responsible and took him to court.

(C) The school's leader at the time was Apollodorus, a prolific writer of about four hundred books nicknamed "the Garden Tyrant." Under him, the Epicureans were growing stronger and even attacking the Stoics' great champion, Chrysippu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Diotimus probably believed he was protecting his school. The Epicureans were on the rise, and their leader had been spreading lies about Chrysippus, so striking back may have looked like loyalty. The result was the opposite. His forgeries brought disgrace not only on himself but on the Stoics as a group. Posidonius, who had reason to challenge Zeno of Sidon, apparently had to write a gentler reply than he had planned, steering attention away from the forger and toward the real points of disagreement between the schools. No later Stoic is on record condemning the affair, and even Seneca never mentions it. An act meant as a defense became a lasting embarrassment.

→ Diotimus's forgeries, intended to (A) _____ his school, ended up (B) _____ it instead.

① defend ..... shaming
② attack ..... shaming
③ defend ..... strengthening
④ abandon ..... protecting
⑤ expose ..... honoring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 Stoic Diotimus, although some sources link him to Posidonius. He is remembered for one shameful deed. At the time, the Epicurean school in Athens was led by Apollodorus, a writer of some four hundred books who went by the nickname "the Garden Tyrant." Apollodorus accused Chrysippus of filling his books with quotations stolen from others. Diotimus struck back by forging more than fifty indecent letters to destroy the good name of Epicurus. Zeno of Sidon, the next Epicurean leader, sued him, and the author has no doubt that Diotimus was fined and exiled from Athens. Seneca, who refers to the Epicurean school over eighty times, never mentions the forgery scandal.

<QUIZ>

(1) How many letters did Diotimus forge to damage the reputation of Epicurus?

Answer for (1): _____

(2) Who was nicknamed "the Garden Tyrant"?

Answer for (2): _____

(3) Which Stoic did Apollodorus accuse of stealing quotations?

Answer for (3): _____

(4) Who took Diotimus to court?

Answer for (4): _____

(5) From which city was Diotimus exiled, according to the author?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Seneca wrote about Diotimus's forged letters?

Answer for (6): _____

(7) Which Stoic philosopher do some sources link to Diotimu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Chrysippus	N. Zeno of Sidon
B. Rome	O. some four hundred
C. Epicurus	P. Diogenes Laërtius
D. Athens	Q. Athenaeus
E. False	R. Posidonius
F. Seneca	S. more than fifty
G. Demetrius of Magnesia	T. Samuel Johnson
H. more than eighty	U. Rutilius Rufus
I. True	V. Magnesia
J. Brutus	W. Shakespeare
K. Sidon	X. Julius Caesar
L. Apollodorus	Y. fewer than ten
M. Marcus Aurelius	Z. Panaetiu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우리가 행한 악은 오래도록 살아남는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셰익스피어였다. (It was ~ who 강조구문 / live on)

02 아마 어떤 스토아 철학자도 디오티무스보다 이 원리를 더 잘 보여 주지는 못할 것이다. (부정 주어 + 비교급 + than)

03 그는 누구에게 배웠는가? (전치사가 끝에 남는 의문문 / study under)

04 우리가 그에 관해 실제로 아는 것은 전부 단 하나의 행동에서 나온다. (All (that) + 단수 동사)

05 그 행동은 너무 무의미해서 거의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린다. (so ~ that / sound + 형용사)

06 아폴로도로스는 크리시포스를 헐뜯기 시작했었다. (take to -ing / 과거완료)

07 스토아는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앙심을 품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be supposed to / let alone / out of spite)

08 아무리 많이 수련했더라도 순간의 성급한 결정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no matter how much + 명사 / undo)

09 비방처럼 흔한 일에 사형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낮다. (It's unlikely that ~ would have been p.p. / as ~ as)

10 우리는 불을 불로 맞서다가 결국 스스로 화상을 입는다. (end up -ing / 재귀대명사)

11 화가 날 때는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거의 언제나 낫다. (가주어 it + to부정사 병렬)

12 그는 디오티무스의 어리석음을 이보다 더 잘 담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could not have p.p. + 비교급)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디오티무스의 출생 / 출신 / 사망	
알려진 신념 둘	
그가 알았다는 철학자 / 저자가 그를 부른 말	
유일하게 알려진 행적 / 사람들을 당혹시킨 기간	
위조 시기 / 그때 아테네와 로마의 상황	
위조한 것 / 수 / 표적	
디오티무스가 그린 에피쿠로스 / 그 결과	
당시 에피쿠로스학파 수장 / 저작 수 / 별명	
아폴로도로스의 비방 대상 / 내용 / 전한 사람	
스토아 교리를 압축한 사람 / 그 말	
같은 무렵 거짓 혐의로 고발당한 스토아	
소송 이야기의 출처 / 고소한 사람 / 그의 지위	
법정의 선고(아테나이오스의 전언) / 저자가 틀림없다고 본 처벌	
시돈의 제논을 반박한 스토아 / 그 책의 어조	

항목	답
에피쿠로스학파를 80번 넘게 언급한 스토아 / 이 사건 언급 횟수	
학자들 다툼의 쓰라림을 말한 사람 / 비유된 인물과 행위	

4-3. 통합 사고 문제 — 9장과 11장을 잇는 자리

문제

9장에서 루틸리우스가 자신이 보호하던 사람들을 갈취했다는 거짓 혐의로 고발당하고도 변론을 거부한 일(72쪽 ¶3~¶5)과, 11장에서 디오티무스가 크리시포스를 향한 비방에 비방으로 맞서 쉰 통이 넘는 편지를 위조한 일(83쪽 ¶6~¶8)을 비교하여 — 원서는 두 일이 대략 같은 무렵이었다고 짚는다(84쪽 ¶3) — 저자가 권하는 대응을 영어 한 구절(84쪽 ¶6의 표현)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9장 또는 11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권하는 대응: When we are angry, it's almost always better to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